



보도자료

담당자 노건엽 연구위원(3775-9039)

보도 2024. 12. 27(금) 조간부터
(온라인 2024.12.26(목) 12:00부터)

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(3775-9115)

매수 총 4매

보험연구원, 『K-ICS 영향분석과 보험회사 대응방안』 보고서 발간

“보험회사 자본관리 수단을 다양화하고 자본의 질을 제고할 필요”

- 보험연구원 노건엽 연구위원(금융제도연구실 실장)은 K-ICS 제도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변화를 분석하고, 보험회사 및 금융당국의 대응 과제를 제시하고자 『K-ICS 영향분석과 보험회사 대응방안』 보고서를 발표함
- (지급여력비율) 새로운 지급여력제도 도입 전·후의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큰 변화가 없음
 - RBC가 적용된 2022년말과 K-ICS를 적용한 2024년 3월말을 비교하면 요구자본이 증가한만큼 가용자본도 증가하여 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급여력비율이 유사한 수준을 나타냄

<표 1> 지급여력비율 비교(제도별)

(단위: 조 원)

구분	2022년 12월(RBC)		2024년 3월(K-ICS)		증가율	
	생보 (a)	손보 (b)	생보 (c)	손보 (d)	생보 (c/a-1)	손보 (d/b-1)
가용자본	85.6	54.2	148.8	110.7	73.8%	104.2%
요구자본	41.5	26.4	74.4	51.2	79.3%	93.9%
지급여력비율	206.4%	205.1%	200.0%	216.1%	△6%p [c-a]	+11%p [d-b]

주: 2024년 3월 말 K-ICS 비율은 경과조치 전 기준으로 산출된 값임
자료: 금융통계시스템

○ (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) 전체 지급여력비율이 아닌 기본자본만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한 결과 보완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함

- 전체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는데 가용자본 중 기본자본만 요구자본으로 나누어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할 수 있음
 - 가용자본은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함
- 전체 지급여력비율과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의 차이가 60%p에서 100%p 이상으로 보완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

<표 2> 지급여력비율 비교

(단위: %, %p)

구분	2023년 12월			2024년 3월			증감	
	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(a)	전체 지급여력비율 (b)	차이 (b-a)	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(c)	전체 지급여력비율 (d)	차이 (d-c)	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(c-a)	전체 지급여력비율 (d-b)
생명보험회사	148.3	208.7	60.4	137.5	200.0	62.5	△10.7	△8.7
손해보험회사	108.6	217.8	109.2	103.1	211.1	108.0	△5.5	△6.7

주: 지급여력비율은 경과조치 전 기준으로 산출된 값임
자료: 각사 경영공시

○ (가용자본) 보험회사는 기본자본이 감소하더라도 보완자본이 증가하여 가용자본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보험계약마진 증가에 기인함

- 기본자본은 보통주, 이익잉여금,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으로 구성되나 보완자본은 신종자본증권, 후순위채 등 자본증권과 ‘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 중 해약환급금 준비금 상당액 초과분’ 등으로 구성됨
- ‘해약환급금준비금 상당액 초과분’은 감독회계 보험부채와 건전성회계 보험부채 간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는 ‘보험계약마진’과 유사함
- 보험회사는 2023년말 대비 2024년 3월말은 ‘할인을 현실화 방안’에 의해 기본자본이 감소하였지만 보험계약마진 증가에 따른 보완자본이 증가하여 가용자본이 유지됨

<표 3> K-ICS 가용자본 구성

(단위: 조 원, %)

구분		기본자본 (a)	보완자본 (b)	가용자본 (a+b)	해약환급금 부족분 중 해약환급금 상당액 초과분 (보완자본 내 비중)
생명보험회사	2024년 3월말 [a] (비중)	102.3 (69)	46.5 (31)	148.8 (100)	28.3 (61)
	2023년 말 [b] (비중)	106.9 (71)	43.5 (29)	150.4 (100)	25.5 (59)
	증감액 [a-b]	△4.6	2.9	△1.6	2.8
손해보험회사	2024년 3월말 [c] (비중)	47.3 (49)	49.5 (51)	96.7 (100)	49.5 (100)
	2023년 말 [d] (비중)	47.4 (50)	47.6 (50)	95.0 (100)	41.2 (86)
	증감액 [c-d]	△0.1	1.9	1.8	8.3

자료: 각사 경영공시

- (경영 대응) K-ICS제도에서 보험회사의 자본관리방안은 RBC제도와 대체적으로 유사하나 ‘보장성 상품판매 확대’, ‘자본감소분 재산출’ 등에서 차별화됨
 - ‘보장성상품 판매 확대’는 보험계약마진의 기여도가 높은 상품을 판매하여 보완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나 제도 및 가정 변경에 따라 보험계약마진이 변화할 수 있어 자본 확충 수단으로 한계가 있음
 - ‘자본감소분 재산출’은 운용자산 및 보유계약을 재평가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일정 조건 충족시 경과조치 적용회사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함
 - 신종자본증권은 RBC제도와 달리 상환촉진조건(Step-up)이 없어야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며 K-ICS제도는 은행의 바젤Ⅲ와 유사하게 조건부자본증권이 발행가능함
 - 파생상품은 거래한도가 사라지고 ‘만기 30년 국채선물’이 2024년부터 거래가 가능하며 공동재보험은 거래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음
 - 내부모형은 최근에 승인신청 매뉴얼이 마련되는 등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고 있음

〈표 4〉 제도별 자본관리방안 비교

구분	RBC	K-ICS
유상증자	가능	가능
자본성증권 발행	· 기본자본: 신중자본증권 · 보완자본: 후순위채	· 기본자본: 신중자본증권(Step-up 부재) · 보완자본: 신중자본증권(Step-up 존재), 후순위채 ·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가능
파생상품 공동재보험	· 파생상품 거래한도 존재 · 채권선도 · 공동재보험 도입	· 파생상품 거래한도 삭제 · 채권선도, 만기 30년 국채선물 · 공동재보험 거래 증가
채권재분류	가능	불가능
내부모형	사례 없음	가능
보장성 판매확대	해당 없음	보험계약마진을 보완자본 인정
자본감소분 재산출	해당 없음	· 경과조치 적용 회사만 가능하나 일정 조건 충족시 중도신청 가능

○ (정책 과제)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용자본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자본관리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

- 가용자본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 지급여력비율뿐만 아니라 해외사례와 유사하게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
 - 유럽 SolvencyII, 캐나다 LICAT, 싱가포르 RBC2에서는 지급여력비율을 이원화하여 운영함
- 회사자체 위험관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‘계약이전 활성화’ 등 다양한 부채 구조조정방안을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음

첨부: 연구보고서 『K-ICS 영향분석과 보험회사 대응방안』

-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(<http://www.kiri.or.kr>)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